*Proceedings of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, Spring 2023*
*April. 14, 2023. pp.51-57*

# 창업기획자 투자동향 및 산업 주요 이슈

**공성현***
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사무국장

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는 벤처투자촉진법 제4장 제24조에 따라 자본금,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영리 및 비영리 법인입니다. 창업기획자는 창업 3년 미만의 극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업의 발굴과 보육, 투자와 성장지원 역할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체입니다.

## □ 창업기획자 등록 및 말소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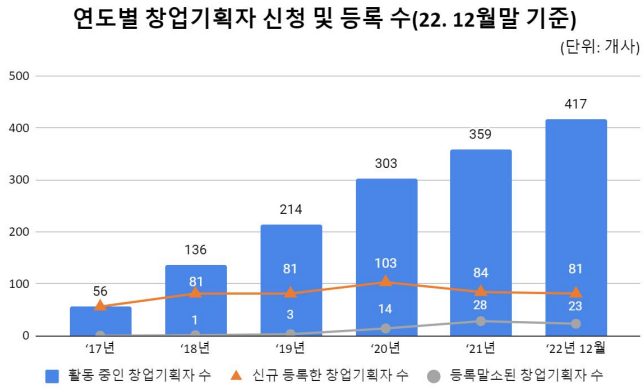
○ 2017년 1월 정식 등록제 시행되고 1호 등록사 '아이빌트' 이래 매년 80여개사 이상씩 증가하며, 현재(22년 12월 기준) 417개사가 등록되어 활동 중

- 2017년 56개사 등록 이후 2020년에는 역대 가장 높은 수인 103개사가 신규 등록하였고, 2020년 말 300여, 2022년 말 400개사 돌파 등 가파른 등록 추이 유지 중
- 등록 유형으로는, 영리법인이 363개사(87.1%), 비영리법인 54개사(12.9%)이며 영리법인 중 전통 투자업을 병행하는 창투사(10개사), 신기사(1개사), 신창사(5개사), LLC(16개사)도 7.6%를 차지하고 있음
- 비영리법인은 창조경제혁신센터, 경제/산업진흥원, 대학 산학협력단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조성되어 있으며, 주로 지역 창업생태계의 창업지원 유관기관임

○ 2020년 벤촉법 제정 이후 말소하는 창업기획자도 증가하는 추세

- 특히 2021년 TIPS 운영사 지정 조건에 창업기획자 등록 의무가 삭제되자 창투사 겸업 창업기획자가 다수 등록 철회 신청
- 대부분의 말소 사유는 자진 신청에 따른 등록 말소이며, 등록한 소재지에서 창업기획자 업무 및 보육을 하지 않아 취소가 된 사례(2건)도 있음

* sh.kong@k-ac.or.kr




| 구분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활동 중(개) | 56 | 136 | 214 | 303 | 359 | 417 |
| 전년동기비(%) | | ▲142.9 | ▲57.4 | ▲41.6 | ▲18.5 | ▲16.2 |
| 신규 등록(개) | 56 | 81 | 81 | 103 | 84 | 81 |
| 전년동기비(%) | | ▲44.6 | 0.0 | ▲27.2 | ▼18.4 | ▼3.6 |
| 등록말소(개) | 0 | 1 | 3 | 14 | 28 | 23 |
| 전년동기비(%) | | ▲100.0 | ▲200.0 | ▲366.7 | ▲100.0 | ▼17.9 |

## □ 지역 창업생태계와 함께하는 창업기획자

○ 지역별로는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이 286개사로 전체 68% 이상 차지

- 수도권 제외한 지역으로는 부산(24개사), 대전(24개사)이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나, 그 외 지역은 10개사 미만이 활동

○ 지역별로는 5개 지자체의 신규 등록 비율이 전체의 80% 이상 차지

- 전체 17개 행정구역 기준, 서울(56.2%)과 경기도(9.5%)지역의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비율이 65.7%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대전(5.8%)과 부산(5.6%), 인천(4.1%)까지 합산할 시 전체의 81.2%를 차지함

| 구분 | 총 기관 수 | 비율 | 비영리 |
|---|---|---|---|
| 서울 | 228 | 55% | 16 |
| 경기 | 43 | 10% | 2 |
| 대전 | 24 | 6% | 5 |
| 부산 | 24 | 6% | 2 |
| 인천 | 15 | 4% | 2 |
| 충남 | 11 | 3% | 6 |
| 전북 | 10 | 2% | 3 |
| 강원 | 9 | 2% | 3 |
| 광주 | 9 | 2% | 2 |
| 경남 | 8 | 2% | 3 |
| 경북 | 7 | 2% | 2 |
| 대구 | 7 | 2% | 1 |
| 충북 | 6 | 1% | 1 |
| 울산 | 5 | 1% | 1 |
| 전남 | 5 | 1% | 1 |
| 세종 | 3 | 1% | 1 |
| 제주 | 3 | 1% | 2 |
| **총계** | **417** | **100%** | **53**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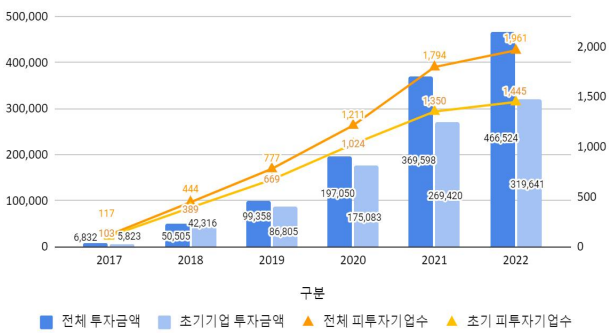
| 지역별 신규등록 추이 (단위: 개수)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분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합계 | 비율 |
| 강원도 | 1 | 2 | 0 | 5 | 0 | 2 | 10 | 2.1% |
| **경기도** | **3** | **8** | **7** | **13** | **9** | **6** | **46** | **9.5%** |
| 경남 | 0 | 4 | 0 | 2 | 0 | 3 | 9 | 1.9% |
| 경북 | 1 | 1 | 4 | 1 | 1 | 1 | 9 | 1.9% |
| 광주 | 1 | 2 | 2 | 1 | 2 | 3 | 11 | 2.3% |
| 대구 | 3 | 2 | 2 | 0 | 2 | 0 | 9 | 1.9% |
| **대전** | **4** | **9** | **5** | **4** | **4** | **2** | **28** | **5.8%** |
| **부산** | **6** | **3** | **3** | **5** | **7** | **3** | **27** | **5.6%** |
| **서울** | **32** | **42** | **42** | **54** | **48** | **55** | **273** | **56.2%** |
| 세종 | 1 | 0 | 1 | 1 | 0 | 0 | 3 | 0.6% |
| 울산 | 0 | 1 | 1 | 1 | 2 | 1 | 6 | 1.2% |
| **인천** | **0** | **4** | **7** | **3** | **4** | **2** | **20** | **4.1%** |
| 전남 | 0 | 1 | 0 | 2 | 0 | 1 | 4 | 0.8% |
| 전북 | 2 | 0 | 2 | 4 | 1 | 1 | 10 | 2.1% |
| 제주 | 0 | 0 | 3 | 1 | 0 | 0 | 4 | 0.8% |
| 충남 | 0 | 2 | 1 | 5 | 2 | 1 | 11 | 2.3% |
| 충북 | 2 | 0 | 1 | 1 | 2 | 0 | 6 | 1.2% |
| **합계** | **56** | **81** | **81** | **103** | **84** | **81** | **486** | **100%** |

## □ 창업기획자 투자 활동

○ 22년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,899억원(투자기업수 6,304개사)이며, 3년 미만 초기기업 누적 투자금액은 8,991억원(총 투자금액 대비 75.5%), 4,980개사에 투자

- 22년 신규투자는 4,665억원, 1,961개사로 전년 대비 26.2% 증가, 초기기업은 3,196억원, 1,445개사에 투자되어 전년 대비 18.6% 증가함
- 전체 투자금액 중 3년 미만 초기기업 대상 투자 비율은 `17년 85.2%, `18년 83.8%, `19년 87.4%, `20년 88.9%, `21년 72.9%, `22년 68.5%로 매년 60% 이상 차지
- 평균 75% 이상을 3년 미만 창업기업 위주로 투자하여 극초기 창업기업의 시드 투자를 리딩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음

(단위: 백만원, 개사)




| 구분 |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전체 | 투자금 | 6,832 | 50,505 | 99,358 | 197,050 | 369,598 | 466,524 |
| | 기업수 | 117 | 444 | 777 | 1,211 | 1,794 | 1,961 |
| 초기 | 투자금 | 5,823 | 42,316 | 86,805 | 175,083 | 269,420 | 319,641 |
| | 기업수 | 103 | 389 | 669 | 1,024 | 1,350 | 1,445 |
| 초기비율(금액) | | 85.2% | 83.8% | 87.4% | 88.9% | 72.9% | 68.5% |
| 초기비율(기업수) | | 88.0% | 87.6% | 86.1% | 84.6% | 75.3% | 73.7% |

○ 창업기획자 유형을 일반법인, 창조센터, 기술지주, 창투사로 구분하여 분석 시

- 전체 투자금액 중 80%를 일반법인형이 차지하고 있으며, 기술지주(16.7%)가 다음을 차지
- 공공기술 사업화 목적의 투자를 전담하는 대학 및 출연연 기술지주사들이 초기 창업투자 분야를 크게 받쳐주고 있음

(단위: 백만원, 개사, %)

| 구분 | | 일반법인 | | 창조센터 | | 기술지주 | | 벤처캐피탈 | | 합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금액 | 기업 | 금액 | 기업 | 금액 | 기업 | 금액 | 기업 | 금액 | 기업 |
| 2017 | | 5,964 | 101 | 500 | 5 | 368 | 11 | 0 | 0 | 6,832 | 117 |
| | 비중 | 87.3 | 86.3 | 7.3 | 4.3 | 5.4 | 9.4 | 0.0 | 0.0 | 100.0 | 100.0 |
| 2018 | | 34,169 | 353 | 1,170 | 15 | 14,758 | 72 | 409 | 4 | 50,505 | 444 |
| | 비중 | 67.7 | 79.5 | 2.3 | 3.4 | 29.2 | 16.2 | 0.8 | 0.90 | 100.0 | 100.0 |
| 2019 | | 68,646 | 611 | 2,125 | 29 | 26,682 | 130 | 1,905 | 7 | 99,358 | 777 |
| | 비중 | 69.1 | 78.6 | 2.1 | 3.7 | 26.9 | 16.7 | 1.9 | 0.90 | 100.0 | 100.0 |
| 2020 | | 148,869 | 943 | 3,446 | 48 | 42,234 | 207 | 2,502 | 13 | 197,050 | 1,211 |
| | 비중 | 75.5 | 77.9 | 1.7 | 4.0 | 21.4 | 17.1 | 1.3 | 1.07 | 100.0 | 100.0 |
| 2021 | | 303,647 | 1,487 | 4,781 | 59 | 56,670 | 232 | 4,499 | 16 | 369,598 | 1,794 |
| | 비중 | 82.2 | 82.9 | 1.3 | 3.3 | 15.3 | 12.9 | 1.2 | 0.89 | 100.0 | 100.0 |
| 2022 | | 385,813 | 1,625 | 5,345 | 46 | 57,884 | 257 | 17,482 | 33 | 466,524 | 1,961 |
| | 비중 | 82.7 | 82.9 | 1.1 | 2.3 | 12.4 | 13.1 | 3.7 | 1.68 | 100.0 | 100.0 |

○ 창업기획자 투자 유형별 투자 추이 분석 시

- 전체 투자 유형 중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 형태가 5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2020년 이후 결성이 가능해진 벤처투자조합 유형 또한 빠르게 증가 중
- 본계정 투자의 감소 추세는 등록 이후 연차가 높아질수록 투자 이력 바탕으로 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

(단위: 백만원, %)

| 구분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전체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본계정 | 3,532 | 22,747 | 32,492 | 70,147 | 52,112 | 30,818 | 211,848 |
| 전년대비 증감률(%) | | ▲544.0 | ▲42.8 | ▲115.9 | ▼25.7 | ▼40.9 | 17.8% |
| 개인투자조합 | 3,300 | 27,758 | 66,86 | 118,072 | 208,098 | 205,858 | 629,952 |
| 전년대비 증감률(%) | | ▲741.1 | ▲140.9 | ▲76.6 | ▲76.2 | ▼1.1 | 52.9% |
| 벤처투자조합 | - | - | - | 8,831 | 109,387 | 229,848 | 348,067 |
| 전년대비 증감률(%) | | | | | ▲1,138.7 | ▲110.1 | 29.3% |

○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결성 추이

- 2020년 벤촉법 제정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결성 가능해지면서 비중이 늘고 있긴 하나, 창업기획자의 주목적 투자 영역 상 대규모 펀드 조성 보다는 소규모 펀드 조성하여 빠르고 많이 투자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어 벤처조합 조성 증가 추세는 더딤
- 오히려, 최근 투자조합 수탁 거부 이슈로 인해 50억 미만 투자조합 결성은 감소 추세이며 이는 전반적인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
- 벤처투자조합 총 건수는 118건에 운용사는 총 66개사로, 소수 기관이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하고 운영함을 확인할 수 있음 (가장 많은 펀드 결성사, 씨엔티테크 10건)

(단위: 백만원, 건수, 개사)

| 전체 | 총 조성금액 | 조성건수 | 운용사 | 50억 미만 조합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조성건수 | 비중 | 운용사 |
| 2020년 | 106,496 | 18 | 15 | 9 | 50.0% | 7 |
| 2021년 | 499,157 | 53 | 36 | 27 | 50.9% | 20 |
| 2022년 | 433,157 | 47 | 37 | 24 | 51.1% | 19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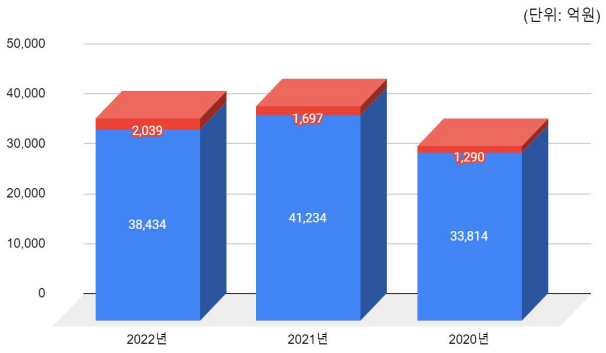
* 창투자, 신기사 겸업 창업기획자의 결성 펀드 중 창업기획자향 아닌 펀드 제외

## □ 모태펀드에서의 창업기획자

○ `22년도 창업기획자 참여 모태펀드 출자금액은 2,0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.2% 증가하였으나 전체 모태펀드 대비 창업기획자의 참여 비율은 5.31%로 소수 차지

- `20년도 창업기획자의 모태 출자펀드 참여비율은 3.8%, `21년도 4.1%, `22년도 5.3%로 모태 출자펀드에서 창업기획자의 참여비율 축소되는 양상
- 특히 모태펀드 참여하는 창업기획자는 총 38개 기관으로, 소수 기관이 다수 모태펀드 운영하고 있어 운영사 편중 심함

| 구분 | 총 모태 출자펀드 | 건수 | 창업기획자 참여펀드 | 건수 | 참여 비율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2년 | 38,434 | 108 | **2,039** | 25 | 5.30% |
| 2021년 | 41,234 | 134 | **1,697** | 23 | 4.12% |
| 2020년 | 33,814 | 119 | **1,290** | 28 | 3.81% |




*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및 산업리포트 참조

- 2022년 중기계정 창업기획자 전용 펀드로 240억 조성 되었으나, 23년 현재 관련 계정 삭제되었으며, 창업기획자 특성을 고려한 모태펀드 전무한 실정

## □ 창업기획자 주요 이슈

○ 창업생태계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창업기획자

- 창업기업 육성을 단기 일회성 지원이 아닌, 민간 전문성과 투자 재원이 참여하는 창업기획자를 활용하는 형태의 창업지원 사업 다수 생성
- 그러나, 극초기 스타트업에 시드 투자 단계를 기업가치 평가로 지분 투자 함에 리스크 존재하며, 가치평가 없이 투자하는 SAFE 또한 후속 라운드 투자가 이러지지 않는 등 회수 구조 찾질 못해 투자 활용도 낮은 상황
- 또한,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로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이 확되되고 있으나, 로컬크리에이터 특성 상 벤처투자 구조(지분가치 거래)에 걸맞지 않아 창업기획자의 참여를 통한 생태계 촉진이 어려운 상황

≫ 이의 해결을 위해,

- 극초기 시드 단계 투자(SAFE 포함) 활성화를 위한 투자 회수 구조 확립 필요
- 창업기획자 운영하는 개투조합의 투자 유형에 보통주/우선주 뿐만 아닌, 프로젝트 투자(매출액/이익 달성 시 회수 등과 같은)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- 지역 창업기획자 활성화 위해 지역 기반 창업기획자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, 지역향 모태펀드 등을 확대할 필요 있음

○ 창업기획자 특성을 살린 벤처투자 정책 마련 시급

- '23년 모태펀드 예산 삭감('22년 5200억 → '23년 3,135억(▼60%))과 국내외 경제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
- '23년 3월 현재 모태펀드 2차 정시까지 공고되었으나, 중기계정 내 '창업기획자' 부문이 배정되지 않음

* '22년 중기계정 2차 정시에서는 '창업기획자 전용펀드' 260억 배정

- 벤처투자자이면서 발굴과 보육의 전문활동을 수행하는 창업기획자의 고유 특성을 살린 모태펀드 전용 계정 필요
- 대표 모험투자 정책 재원인 모태펀드가 극초기 투자를 '지분투자'로만 유도하는게 아닌, 창업기획자를 활용한 '성장투자'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 되어야 함
- 또한, 창업기획자의 우수성을 '투자정량지표'만으로 판단하고 있어, 우수 배치/보육 전문기관을 판단-평가할 방안 모색 필요

≫ 이의 해결을 위해,

- 모태펀드 중기계정 내 '50억 미만' 창업기획자 전용펀드 부문 확대 필요
- 성장/보육 활동 장려하며, 보육활동 성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마련 필요

○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상장 철회, 하지만 다음 주자는 언제나 준비 중

- 업계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창업기획자인 블루포인트가 상장 철회 결정(22년 3월)
- 추가 상장을 준비 중인 창업기획자 존재하나,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 및 창업정책 등의 변화로 인해 당장 도전하진 않는 상황
- 그러나, 극초기 창업생태계는 여전히 관심 영역이며 창업기획자의 투자 환경 또한 개선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, 창업기획자 대형화와 더불어 상장도 이어질 것

* 누적 투자 50억 이상한 창업기획자 53개사, 전체 투자의 83.2% 차지

** 누적 50건 이상한 투자한 창업기획자 29개사로 전체 투자 건수의 60%

*** 100억 이상 투자한 30개사 중, 10건 미만 투자한 창업기획자 2개사

○ 투자혹한기. 민간 재원 확보는 갈수록 어려우나, 그것보다 더 어려운건 수탁 이슈

- 2020년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이후 규모있는 펀드 조성에 참여하고 있으나, 조합 수탁 이슈로 결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
- 중기부와 금융기관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으나, 수탁 거부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
  * 50억 미만 조합은 수탁 거부하고 있으며, 수탁 수수료를 0.3% 이상 또는 연 1천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진행이 어려운 상황
- 금융기관의 사업적 관점에서 꺼려질 수밖에 없는바,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

≫ 이의 해결을 위해,

- 일시적으로라도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수탁 문제 풀어야 함
  - 수탁 없이 운용 가능한 조합 규모를 현 20억에서 50억까지 확대
  - 또는,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법인 투자자가 투자조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 (현재 30% -> 60% 이상)